

## 근대와 민족,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

전환기 근대사의 조명 기말과제 - 독서 감상 및 서평  
아주대학교 정보통신대학 미디어학과 201721107 박성범

—

한국인들은 중국과 중국인들에 대해 완전히 반대되는 두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중국은 끔찍한 인권 실태와 후진적인 시민 의식, 비윤리적인 정부를 연상시킨다. 한편, 미국에 맞먹는 초강대국이자 떠오르는 IT강국, 모든 방면에서 경외감을 불러 일으키는 규모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중국을 '짱깨'라며 무시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동시에 중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꽤 흥미로운 일이다.

나 역시 중국이라는 국가를 하나의 정체성이나 민족성으로 규정하려 했던 적이 있다. 물론 중국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인 개개인을 하나의 속성으로 몰아넣는 짓은 하지 않고자 한다. 중국인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문화가 어떤 역사적 맥락으로 형성된 것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 집단의 맥락을 이해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는 이번 과제에서 중국의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중국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천안문>을 골랐다. 그리고 책을 읽으며 '근대'와 '민족'이라는 두 개념에 대해 생각해봤다.

### — 근대와 민족 —

한 국가의 구성원들을 특정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다. 특히 민족성이라는 틀로 개개인의 특성이나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직관적이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기 쉽다. 가령 중국에서 일어난 장기밀매 사건을 기사로 접한 네티즌들은 아무렇지 않게 "역시 중국답다"라는 말을 내뱉는다. 이 '중국답다'라는 말 속에는 지적 받아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만약 한국인과 중국인이 완전히 다른 인종이었다면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중국답다'라는 말이 지금처럼 많이 쓰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인종보다는 민족이라는 개념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

민족이라는 개념이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다는 것은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도 배우는 내용이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인식에 스며들지는 못한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매우 오랜 기간 단일 민족과 순수 혈통을 강조해왔고, 외부를 적으로 만들며 내부 결속을 다져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선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이다. 작년 말에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 대략 구로

구 가리봉동의 차이나타운에서 범죄를 일삼는 '조선족'을 소탕한다는 액션 영화였다. '통쾌하고 화끈한 액션'을 내걸었지만 그 통쾌함 뒤에는 조선 동포에 대한 혐오가 숨어있었다. 무슨 우연인지 비슷한 시기에 <청년경찰>이라는 영화도 극장에 걸렸다. 역시 유사한 내용으로, 영등포구 대림동의 차이나타운에서 젊은 경찰대생이 조선족을 소탕하는 범죄 액션 영화였다. 나름 다행인 것인지, 전문가 평가에는 "인간과 시대에 대한 무례와 무지", "소수자를 향한 시선의 부재"와 같은 혹평이 이어졌다. 두 영화는 특정 공간을 우범 지역으로 소개하고, 그 이미지를 재생산함으로써 해당 공간에 조선 동포들을 직접적으로 혐오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같은 시기에 조금 다른 영화도 개봉했는데, 바로 <남한산성>이었다. 영의정 김류가 청나라 역관 정명수에게 같은 조선인인데 이럴 수 있느냐 물으니, 정명수는 "나는 부모가 노비라 태어날 때부터 노비였고, 조선에서 노비는 사람이 아니다. 다시는 나를 조선 사람이라고 부르지 마라"며 단호하게 대답한다. 당시 조선 상황을 생각해보면 꽤 씁쓸한 역적이지만 국가에게 버림받은 그에게 국가가 어떠한 의미도 갖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기도 한다. 청군에게 길을 알려주고 쌀이라도 받아보겠다는 나루터의 노인을 칼로 베면서 시작하는 영화의 첫 장면을 떠올려보면 더욱 그렇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일 담론 역시 민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20대, 30대 연령층은 통일을 민족적 과업이라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경제 논리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고 바라본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노력해 번 돈이 북한 사람들을 위해 쓰인다는 것에 반감을 갖기도 한다. 나는 전쟁 위기를 안고 살아가는 사회경제적 비용 측면에서 통일이 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러 방면에서 통일을 찬성하는 편이다. 다만 남북이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다시 합쳐져야 한다는 근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민족이라는 개념이 개입하는 순간 통일은 도덕의 문제가 되고 만다.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 마치 민족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춰지는 것은 옳지 않다. 민족을 강조하며 사안을 도덕적 문제로 끌어들이는 것은 꼭 통일 논의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개인은 스스로를 집단의 작은 부품으로 여기게 된다. 그 참혹한 결과는 20세기 초의 일본에서 볼 수 있다.

근대와 민족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애초에 현대 국가가 민족을 단위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둘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과거 서구 열강들이 중국을 침략할 때, 그곳에 단지 경제 논리만 있던 것은 아니다. 근대화를 이룬 유럽 국가들은 중국을 문명화해야 할 대상으로, 야만적인 민족으로 바라봤다. 아시아에 대한 서구 열강의 인식은 심지어 지금도 일상의 곳곳에 남아있다. 한국 역시 서구 열강의 침략을 경험했고,

제국주의 질서에 편입된 일본의 직접적인 식민 지배에 놓였던 과거가 있으니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특정 민족을 문명화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봤을 때 다양성은 완전히 무시된다. 주위에서 종종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일본 덕분에 조선이 근대화될 수 있었다”보다는 “일본이 없어도 조선은 스스로 자본주의 체제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전자는 자명하게 잘못된 주장이지만 후자는 조금 헛갈리게 만든다. 정말 조선이 스스로 자본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 여부를 떠나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 비틀어보면, 꼭 서구식 근대화가 역사적 진보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물론 나는 근대화가 가져온 이성과 합리, 물질적 풍요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이러한 요소들은 분명 근대화의 속성 중 하나일 것이지만, 이것이 꼭 자본주의의 확립을 통해서만 이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으며, 그 방법이 폭력적인 근대화가 되어서는 더 더욱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공동체 구성원을 고통으로 몰아넣으면서까지 근대화를 해야 하는지, 꼭 근대화를 통해서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한 고민은 부족했던 것 같다. 한때 마르크스주의의 가능성을 고민한 적이 있다. 그런데 유물사관 역시 역사를 선형적으로만 바라본다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원시공동체에서 봉건사회로,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한다는 이론을 유럽 외의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특히 이를 역사적 ‘발전’으로 해석하면 비백인 인종을 향한 차별과 혐오로 동작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당시에는 국제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공동체 구성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근대화를 찬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서구식 근대화가 낳은 결과는 결국 제국주의적 야욕과 수많은 목숨의 희생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의 근대화는 오히려 인류가 진보해온 역사가 아니라 청산하고 개선해야 할 과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 나라에서 근대화는 또 다른 의미를 갖기도 한다.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진행된 국가 주도 개발 정책이 그것이다. 개발의 주체가 일본에서 정부로 바뀌었을 뿐이지 민중 입장에서 보면 개발을 명목으로 한 산업화는 일본이 주도한 근대화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는 ‘한강의 기적’과 함께 ‘박정희의 공’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노동자를 쥐어짜고 민주화를 외친 청년들을 죽여가며 세운 경제 발전은 그리 자랑스럽지

않다. 이러한 모습을 지우고 단결된 민족성만을 강조하는 것을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국가주의적 태도밖에 되지 않는다. 국가와 기업이 착취한 노동자들을 마치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한 산업역군'으로 포장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 만약 그 노동자들이 국가보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일한 것이었다면 잘못된 것일까? 개인의 생계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비윤리적인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 것은 비도덕적인가? 분명 그렇지 않을 것이다.

### — 오늘날의 한국 —

내가 중국의 현대사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대만 여행을 준비할 때였다. 아무래도 나의 여행 테마는 국민당이 타이완섬에서 자행한 만행과 그 이후 벌어진 민주주의 투쟁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 시작을 따라가면 중국의 역사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대약진 운동 이후 이어진 전국적인 격변에 깊게 빠져 들었다. <천안문>에서는 특히 '5장 굶주린 땅'에서 다룬 5.4 운동이 매우 인상 깊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기억에 남는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대규모 시위를 이끌었다는 점이다. 베이징 13개 대학에서 3천여 명의 학생이 모였고, 여기에 이어서 몇 만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 당시에는 전통적으로 공부를 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을 텐데, 정부에 대항하는 대규모 저항을 조직했다는 것이 대단하다. 나는 이 장면에서 현재의 모습을 본다. 지금의 대학 사회가 20세기 초의 대학 사회보다 성숙해졌는가를 생각하면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렵다. 대학생이라는 신분이 가진 지식인적 특성이 많이 약화되었다는 점과 공급 과잉으로 대학 프리미엄이 사라졌다는 점을 고려해봐도 대학이라는 특수한 공간이 지닌 성격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대학 구성원들은 더 이상 사회 문제에 대해 성숙한 인식과 행동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제 대학은 역동적이지 않다.

물론 사회 참여가 대학 사회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절대적 척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대학의 사회 참여를 논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학이 적어도 부조리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조직 중 하나라고 보기 때문이다. 20대층에서 자기계발서는 오랜 기간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고, 청년들은 힐링을 통해 힘든 시기를 참으려 한다. 많은 학생들이 사회경제적 소외계층과 소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노력의 부족으로 치부하곤 한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대학생 개개인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과거

에 비해 취업 경쟁이 심해졌고, 개개인이 파편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공고화되어 왔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구조는 청년들이 자기 통제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었으며, 동시에 변화보다는 순응에 익숙하도록 만들었다. 청년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나 역시 그 일부라는 사실에 죄책감과 무력감을 느낀다.

두 번째는 여성 인권 운동이 동반되었다는 점이다. 운동의 목적이 정의로워도 그 안에서 여성은 소외되곤 했다. 그런 점에서 5.4 운동과 신문화운동 시기에 여성 인권이 강조된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다. 여성을 억압해온 봉건 사상을 탈피하고 사상의 해방을 이룬 것은 혁명적인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마오쩌둥 집권 시기 여성인권이 더욱 신장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오히려 권위주의적인 공산당 때문에 여성인권이 퇴보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반대로 여성의 사회, 경제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했다는 것이 놀라웠다. 하지만 그런 흐름과 반대로 이후의 전개는 절망적이었다. 제노사이드에 가까운 여아 낙태와 여성주의 운동 탄압이 이어졌다. 자유화와 시장 경제 체제가 여성에게는 또 다른 억압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한국도 전통적으로 여성을 억압해온 역사가 있다. 과거에 비해 한국의 여성 인권은 많이 신장되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몇 년째 성평등 순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장 남성에 의한 여성 대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와 데이트 폭력, 몰카 범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여성에 대한 각종 편견과 성 역할 고정관념이 일반 인식에 뿌리 깊이 자리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임금 차별, 고용 차별이 오랜 기간 지적 받고 있음에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일고 있는 여성인권 운동 움직임이 5.4 운동 시기 중국의 계몽 운동과 같은 거대한 힘을 얻길 희망한다.

—

<천안문>을 읽으며 다양한 주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의 과거를 통해 현재 동아시아의 정세를 나름 해석해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중고등학교에서 이어져온 '국사' 중심의 교육을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한 국가의 관점으로 역사를 공부했을 때는 큰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왔는데, 이를 단순히 현대 국가를 중심으로 분리해 이해하려는 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데 잘못된 관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일본의 근현대사도 좀 더 깊게 알아보고 싶다. 특히 전후 일본의 역사는 걸  
핥기 정도로만 공부했기 때문에 더욱 갈증을 느낀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  
하지 못한 동남아 국가들의 역사가 궁금해진 계기가 되었다.

#### — 참고문헌 —

김경동, 「동아시아 근대화와 자본주의 형성 및 전개」, 『아시아리뷰』 제5권 제2호, 서울대  
학교 아시아연구소, 2016.

김호기, 『한국의 현대성과 사회변동』, 나남, 1999.

류찬열, 「혐오와 공포의 재현을 넘어 공감과 연대의 재현으로 - 영화 <청년경찰>과 <범  
죄도시>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제27집,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8.

손명아, 「대학생 통일논문집을 통해 본 한국 대학생의 통일담론」, 『한국사회학』 제49집  
제4호, 한국사회학회, 2015.

어주영, 『중국사회에서 여성지위의 고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2007.

오찬호,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개마고원, 2013

하영애, 「5.4 운동 시기 중국의 여성 운동 - 참정운동과 교육평등을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6집 제3호, 21세기정치학회, 2006.

한옥자, 『경기 WIFI vol. 98』,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7.

경향신문, “금수저, 흙수저는 현실, 한국은 신계급사회로 가고 있다”, 2015.

시사IN, “교육? 아 그거, 부의 ‘세습 수단’됐잖아!”, 2015.

China Briefing, “Holding up Half the Sky? Assessing the Current State of Female  
Employment in China”, 2016.